

옥수수를 밀로 대치하면 어떨까?

Ridlen & Hugh Johnson

편집부역

1970년도 미국의 옥수수 수확량은 10%정도 감수가 예상된다. 수확량 감소로 미국 자체내의 가격이 15~20% 인상되리라는 전망이다.
옥수수대신 밀로 대치하는 것을 구상중인가…… 어떨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나 능력을 기초로 둔 관점에서 밀은 옥수수의 일부 혹은 전부를 대치할 수 있다. 밀에서 부족되는 영양소는 다른 것으로 대치하여 주고 대치율은 가격에 기준을 두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래 옥수수는 양계사료의 대종을 이루는 곡류사료이지만 밀을 사용했다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동량의 옥수수와 밀의 에너지, 단백질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에너지 단백질 함량

밀은 섬유질이 많고 지방의 함량이 떨어져 옥수수보다 5~10% 정도 에너지 함량이 떨어진다. 가격은 밀이 5~10% 옥수수보다 싸다. 옥수수와 밀은 같은 양을 혼합하게 되면 옥수수만 쓸때 보다 사료효율이 떨어진다.

옥수수와 밀의 단백질 함량은 대두박어분, 육분보다 훨씬 떨어진다.

그러나 단백질의 공급은 반 이상이 곡류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하며, 옥수수의 단백질은 8.5% 밀의 단백질은 12%로 밀 1파운드의 단백질은 옥수수 1.4lb와 같다. 1970년 10월 17일 현재 쉬카고 FOB가격 bushel당 1.4525불에 기준을 두고 환산하면 옥수수 100파운드 당 가격이 2.59불인데 밀은 훨씬 싸고 앞으로도 계속싼 가격이 유지될 것이다.

난황색갈

소비자들이 원하는 난황의 색깔은 균일하게

노란 것인데 이것은 사료중 황색 옥수수나 알팔파 분말의 산토필 색소(Xanthophyll)에 의한 것이다.

사료에 옥수수 대신 밀만 사용한다면 난황색을 위하여 3%의 알팔파분말을 사용해야 하며, 알팔파를 3%까지 사용할 수 없으면 옥수수를 3%까지 사용해야 한다. 옥수수를 30% 정도 쓴다면 알팔파 분말을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밀의 점착성(粘着性)

밀을 가늘게 부수면 글루텐 때문에 풀처럼 곤적끈적하게 된다. 사료를 먹고 물을 마실 때 풀같이 되어 입이나 부리에 달라붙어 잘 먹지 못하게 되어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잘게 부순 밀은 15~20% 이상 대치시키면 곤란하다.

밀을 거칠게 부수기 위하여 롤터밀을 사용하거나, 긁은 스크린을 채운 험마밀을 사용하거나, 분쇄한 귀리, 보리, 소맥과를 좀 더 섞거나, 웰링트 크럼블로 만들면 밀을 더 대치할 수 있다.

비타민, 아미노산, 난중

밀에는 옥수수보다 비타민 A의 역가가 떨어지지만 대부분 비타민 첨가제는 비타민 A의 필요량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 가 되지 않는다. 다른 비타민은 밀이 옥수수에 비하여 별로 손색이 없다.

또한 밀만 사용하게 되면 계란이 작아지지만 옥수수와 밀을 함께 쓰면 계란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 □□